현대북한연구, 28권 3호(2025), © 2025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pp.96~133.
http://dx.doi.org/10.17321/rnks.2025.28.3.003

김정은 시대 공연예술의 변화과정과 함의 고찰

주요 악단 및 당대회 공연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서민정* · 백승진**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의 공연예술은 예술 자체의 목적을 지향하기보다는 체제수호와 최고지도자의 우상화라는 사상전의 첨병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의 공연예술은 '사회주의 문명국가 건설'이라는 목표하에 인민들에게 새로운 사회주의 문명 혜택을 베푸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김정은이 창단한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제7차 당대회와 제8차 당대회 축하 공연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의 공연예술 활동은 체제수호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유지하면서 세습 권력을 정당화하고, 국제사회에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문화 외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공연 형태도 현대적·개방적으로 변화하고 과학화되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공연예술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으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분석하고 문화예술정책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주제어: 김정은 시대, 북한 공연예술, 체제수호, 최고지도자,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삼지연관현악단, 국가 이미지 형성

* 경상국립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1. 서론

이 논문은 김정은 시대 창단된 주요 악단의 공연 활동과 당대회 축하 공연의 분석을 통해 북한 공연예술의 변화과정과 함의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의 문화예술은 예술 자체의 목적보다는 체제수호와 최고지도자의 우상화를 위한 정치적 목적이나 선전·선동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1] 당시에는 지도자의 의중과 정치 상황에 맞추어 예술이 창작되고 연행되었다. 그러나 새 지도자의 등장은 선대 수령의 유훈을 계승하는 정치적 목적은 같았지만, 새 지도자의 정치방식에 따라 문화예술 정책 방향이 달라지고, 예술 활동의 내용도 새롭게 구성되었다.

김정은 체제가 시작된 이후 공연예술은 김일성·김정일 시대처럼 '체제수호'라는 선전·선동의 목적과는 달리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김정은 시대 초기의 국가 목표는 '사회주의 문명국가' 건설이다. 이는 "사회주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학, 교육, 보건의료, 문화, 체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문명 수준'을 달성하여, 인민들에게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비전이다. '사회주의 문명국가 건설'을 국가 목표로 제시한 김정은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도록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일 것을 강조하고, 악단 창단과 공연 활동을 통해 그 목표를 실천하였다.

김정은 시대의 공연예술은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집권 초기부터 '사회주의 문명국가 건설' 목표하에 '민족성과

1) 이우영, "북한 문화예술의 개념 및 역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문화, 둘이면서 하나인 문화』(파주: 한울엠플러스, 2006), 30~31쪽.

현대성의 조화'를 강조면서 새로운 악단을 창단하고 첨단 영상과 무대조명, 전자악기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 새로 창단된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삼지연관현악단 등의 공연예술 활동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이는 당시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조선'을 계승하는 것이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탈조선과 세계화'를 지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김정은은 예술인들에게 세계적 수준에 맞는 새로운 작품 창작을 요구하였다.[2] 이에 따라 공연예술은 단순한 '체제수호' 차원의 선전·선동의 수단을 넘어 '젊고 세련된 사회주의국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국가 이미지 형성을 위한 문화 외교적 기능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하지만 2019년 2월 대북제재 완화 등 경제적 목적으로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외부 조건을 개선하고, 정상국가로서 발전을 기약하였던 김정은의 경제정책은 실패하였다. 2020년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자 북한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상황에 맞서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중국에 의존하던 대외무역이 끊기고, 경제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이에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 위기까지 불거졌다.

이러한 체제위기는 김정은 초기에 추진한 '세계적 수준의 문명국가

2)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 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14년 5월 17일. 김정은은 "문학예술 부문이 굳어진 틀과 낡은 도식에 매여있어 창작가·예술인들의 수준과 창작적 기량도 발전하는 현실과 당의 요구에 비해볼 때 뒤떨어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주인은 인민 대중이므로 인민들이 요구하고 좋아하는 문학예술로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건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공연예술의 방향도 초기 집권 초기의 '현대화·세계화'를 대신하여, 과거로 다시 회귀하기도 했다.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은 '천리마시대', '전쟁세대의 영웅'을 호명할 정도였으며, 다른 예술 분야도 창작 활동 미진 등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은 과학기술의 성과로 경제난에 처한 인민들을 위로하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연예술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화려한 형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에서 새로 등장한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삼지연관현악단 등의 공연 실태, 그리고 제7차 당대회와 제8차 당대회 축하공연 내용을 문헌분석 방법을 통해 시기별로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시대 공연예술의 특성과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당대회 공연예술의 분석을 통해 북한 공연예술의 변화과정이 이전과 어떻게 변화하고 차별화되는지를 심도 있게 보여주고자 했다. 본 연구를 통해 북한 당국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공연예술의 변화과정을 통해 북한의 사회·문화 변화상을 유추해 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할 것으로 본다.

2. 공연예술의 발전과정과 기존 연구

1) 공연예술의 발전과정

북한의 공연예술은 무대 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식의 예술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북한의 공연예술은 혁명가극을 비롯하여 음악(악단), 무용, 연극, 교예, 예술공연, 대집단체조 등을 포함하여 무대나 무대화

된 공간에서 열리는 행위예술을 의미한다.[3] 북한에서 공연예술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 주요 명절이나 노동당 대회와 같은 기념일에 열리는 축하 공연과 경축 공연을 포함하며, 대집단체조 등도 공연예술에 포함된다.[4] 북한의 문학예술은 북한체제 시작 이후부터 '시대의 요구에 맞는 민족적 형식'의 주체 사회주의 예술의 기준을 세워나갔다.

그러다 1960년대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 형성기에 항일혁명 투쟁을 가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혁명가극 〈피바다〉가 공연예술 형태로 창작된 것이 공연예술의 효시가 되었다. 북한의 민족가극은 혁명가극 〈피바다〉를 분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혁명가극 〈피바다〉는 1960년대 이후 항일혁명투쟁을 소재로 창작된 공연예술 형태의 창작가극이며, 북한체제가 지향하는 공연예술의 전형이자 기준이 된 작품이다. 따라서 혁명가극 〈피바다〉 창작 이전의 공연작품은 '민족적 형식'으로 창작되었지만, 〈피바다〉 이후의 모든 공연예술은 〈피바다〉 방식으로 창작되었다. 이후 혁명가극에 음악, 무용, 집단체조 등이 포함되면서 종합예술로 발전하였다.[5] 공연예술이 종합예술을 지향하는 것은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6]

---

3) 안희열, 『주체적 문예리론 연구 22: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6), 316쪽.

4) 북한에서 공연의 사전적인 의미는 "음악, 무용, 연극, 교예 등 무대 예술작품들을 관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공연예술은 "극장 무대공연과 순회공연 및 외국 방문 공연"으로 구분한다. 『문학예술사전』(평양: 사회과학연구원, 1972), 58쪽.

5) 〈피바다〉는 김일성이 항일무장혁명투쟁 시절이었던 1936년 8월 '혈해'라는 제목으로 만주 만강부락에서 처음 공연한 것으로, 1971년 피바다가극단에서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창작하여 무대에 올린 가극이다. 혁명가극의 특징은 한 작품에 200명 이상의 배우가 등장하며 김일성의 우상화와 반제국주의 혁명성을 고양한다.

6) 전영선, "김정은 시대 북한 공연예술의 현황과 특징," 『통일과 평화』, 제15집 2호 (2023), 93~94쪽.

북한의 공연예술은 종합공연 형식으로 진행하며 형식과 내용 면에서 위대한 공연을 의미한다. 북한에서는 당과 국가가 그 위대함을 보여주고 집단주의의 위력을 과시할 때 대형 종합공연을 지향한다. '대공연'이나 '종합공연'이라는 타이틀이 붙는 공연에는 수천 명에서 1만 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한다. 종합예술 형식을 예술 발전의 당연한 과정으로 인식하기에 '북한식 공연예술' 형식이 발전하였고, 규모도 점점 커지게 된 것이다.[7] 심지어 10만 명이 참가하는 대집단체조와 같은 예술공연도 있는데, 대표적 작품으로는 2018년 새로 창작된 〈빛나는 조국〉과 〈인민의 나라〉 그리고 2019년 창작된 〈불패의 사회주의〉가 있다. 특히 〈빛나는 조국〉은 김정일 시대의 〈아리랑〉(2002~2013년 공연)을 대신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북한에서 음악은 정치의 한 부분이다. 음악은 노동당의 사상과 의도, 노선과 정책을 반영하고 노동당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한다. 북한 음악의 목적은 정치와 인민의 교양에 있다. 김일성은 "혁명적인 노래는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도 적의 심장을 뚫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생각을 예술단으로 구체화하여 북한 최초의 예술단인 '만수대예술단'을 만들었다. 김정은은 집권 후 모란봉악단을 창단하면서 "모란봉악단의 기본 사명은 우리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음악을 생활과도 연관시켜 "노래는 혁명 투쟁의 위력한 무기이며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이다"라고 부연하였다.[8]

---

7) 안희열, 『주체적 문예리론 연구 22』, 316쪽. "지난 시기 문학예술 혁명과정에 가극혁명, 연극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형태의 무대종합 예술형식인 〈피바다〉식 가극과 〈성황당〉식 연극과 같은 형태들이 창조됨으로써 무대종합 예술형식에서 새로운 혁신이 이룩되었다.

김정은 시대의 공연예술은 김정은과 노동당이 제시한 정책과 내용에 따라 전개되었다. 김정은 시대 초기의 국정 방향은 '사회주의 문명국가 건설'이며, 이는 김정은이 집권 직후인 2012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발표된 새로운 국가 비전이다.[9] '사회주의 문명국가 건설'을 국가 목표로 제시한 김정은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과감한 인식 변화를 요구하였다. 김정은은 집권 초 창단한 모란봉악단 공연을 통해 "남의 것이라도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과거에 머물지 말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문하였다.[10]

김정은의 '음악정치'는 김일성·김정일에 이어 3대째 내려오고 있다.[11] 김정은은 2012년 7월 '음악정치'의 연장선에서 모란봉악단을 창

8) 정치이념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도구로 예술을 활용한 사람은 김정은만이 아니다.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도 "예술은 인민을 사회주의로 몰고 가는 혁명적 수단"이라고 정의했다. 고수석, "김정일·김정은 부자 '노래'로 권력과 부인을 얻다: 북한의 3대 걸친 '음악정치'," 『월간중앙』, 제44권 3호(2018).

9)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집권한 2012년은 북한이 사용하는 주체 연호로 101년에 해당한다. 2012년은 김일성의 탄생을 기점으로 2011년이 100년이고, 2012년 101년이었다.

10) 『로동신문』, 2012년 7월 9일. 『로동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조직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제하로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인민의 구미에 맞는 민족 고유의 훌륭한 것을 창조하는 것과 함께 다른 나라의 것도 좋은 것은 대담하게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시었다.

11) 북한에서 '음악정치'라는 용어는 2000년 2월 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인민무력성 집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당시 조명록(1928~2010)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인민군 고위 장성들은 토론에서 "지금 그 어느 시대에도 있어보지 못한 우리 식의 독특한 음악정치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노래로 온갖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자"라고 외쳤다. 그 이후 북한은 음악정치를 "타고난 예술적 재능을 바탕으로 '총대와 음악'을 결합한 선군시대의 독특한 정치방식"이라고 선전했다. 『월간중앙』, 3월호(2018).

단하고 이어 2015년 7월 청봉악단을 창단하였다. 청봉악단은 창단 직후인 2015년 8월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당에서 공훈국가합창단과 합동 공연을 했다. 이들의 일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한 삼지연관현악단의 멤버로 자격으로 한국을 찾았다. 삼지연관현악단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특별히 편성된 예술단체이다.[12)]

김정은 시대 문예 창작 및 공연예술 활동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9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종합공연이나 대공연 등의 활동을 자제하였다. 이 기간은 제7차 당대회 이후 핵무력 완성으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강화된 데다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시기이다. 따라서 대형 창작공연 대신 인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국가의 주요 명절이나 기념행사 때 이벤트성 행사를 진행했다. 북한 당국은 제8차 당대회 이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화되자 '인민'을 강조하면서 '인민을 위해 이벤트성 볼거리 행사'를 제공하였다.

2) 기존연구의 검토

본 선행연구에서는 북한 공연 활동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음악정치와 혁명가극에서부터 김정은 시대의 주요 악단 창단 및 공연 활동, 그리고 제7차와 제8차 당대회 축하 공

12) 삼지연관현악단은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삼지연악단, 만수대예술단, 조선국립교향악단 등 6~7개 예술단의 최정예 연주자와 가수로 구성되었다.

연에 이르기까지 공연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먼저 북한의 음악정책에 관한 연구로는 오양열, 이춘길, 최영애의 연구가 있다. 오양열(1999)은 1990년대 말 북한 문예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문예정책 체제의 운용 메커니즘과 향후 변화를 전망하였다. 1990년대 말 북한 가요는 '우상숭배 경향의 강화'라는 특징을 지니며, 특히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1997~1999년 동안 창작 발표된 가요가 '김정일 우상화'를 주축으로 군사중시 및 사회주의 찬양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 경향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13] 이춘길(2009)은 북한의 주체적 문화개념, 민족문화론, 계급문화론, 문화혁명론 등 주요 문화론적 개념들에 대해 분석하였으며,[14] 최영애(2010)는 북한음악을 이해하기에 앞서 북한의 사상인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5]

강동완(2014)은 그의 저서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한다』에서 김정일 시기에 개념이 정립된 '북한음악'이 김정은 시대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16] 모란봉악단이 데뷔한 2012년 7월 시범공연부터 2017년 12월까지 개최된 총 31회차 공연을 모두 비교·분석하였다.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모니터하고 공연 내용, 무대 형식의 변화, 공연 내용에 포함된 김정은의 현지지도 메시

13) 오양열, "90년대 말 북한 문예정책의 동향과 향후 전망," 『문화정책논총』, 제11권(1999).

14) 이춘길, "북한 문화이론의 주요개념에 대한 고찰," 『대중서사연구』, 제22호(2009).

15) 최영애, "북한음악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6호(2010).

16) 강동완,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하다』(서울: 선인, 2014).

지, 그리고 북한 내부 정세변화와 관련된 사상적 메시지 등이 공연을 통해 잘 전달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주정화(2015)는 〈피바다〉 등의 혁명가극을 통해 북한의 '음악정치'의 전개 방식을 분석하였다.[17] 가극이나 뮤지컬에서 더 나아가 선전·선동 방식으로의 공연에 주목하며 김정은 시대에서도 '음악정치'가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강동완(2020)은 북한의 당대회 축하 공연과 관련한 논문이 수적·양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제7차 당대회(2016) 축하 공연의 내용과 의의에 대해 분석하였다.[18] 내용은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등 3개 예술단체가 함께 무대에 선 것 자체가 북한에서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제7차 당대회 직후에 개최된 축하 공연을 통해 북한이 당-국가체제를 확립하고 당의 영도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권란(2021)은 논문 "조선노동당 당대회 축하 공연 분석을 통한 김정은 문화예술정책 변화상"에서 제7차 당대회 축하 공연과 제8차 당대회 축하 공연을 비교·분석하였다.[19] 내용은 당대회에서 내세운 정책들은 당대회 축하 공연의 구성과 선곡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문화예술 정책에도 적용되는 측면이 관찰되었다. 특히 김정은의 권력 장악과 정치적 위상에 따라 공연 프로그램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 확인되었다. 제7차 축하 공연 때에는 지도자의 능력과 자질 증명을 통해 신

17) 주정화, "북한의 음악정치: 5대 혁명가극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1집 1호(2015).

18) 강동완, "북한의 제7차 당대회 경축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특징과 의미," 『정치·정보 연구』, 제23권 2호(2020).

19) 권란, "조선노동당 당대회 축하공연 분석을 통한 김정은 문화예술정책 변화상"(2021).

뢰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졌으며, 집권 10년 차인 제8차 공연에서는 핵무기 개발 등 군사적 분야 성과와 김정은의 우상화, 신격화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하승희(2019)는 논문 "북한의 악단 변화연구(1945~2018)"에서 김정은 시대에 새로 등장한 악단의 특징과 변화의 추동 원인을 밝히고자 했다.[20]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의 악단은 '체제 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성에 기인하여 대내외 환경의 영향 및 민족적 형식과 세계적 추세에 영향을 받아 창립되었다. 반면, 김정은 시기에서는 '민족적 형식'을 부분적으로 강조하면서 동시에 세계적 음악 추세를 고려, 악단 형식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김정은 시대의 음악을 통한 공연 활동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인민의 취향, 특히 젊은 세대의 취향을 반영하였다. 과거에 중시되던 가사와 선율보다는 리듬 강조되었고, 다양한 대중음악적 요소가 담긴 경음악단의 증가는 인민의 취향을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전영선(2023)은 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공연예술의 현황과 특징"에서 북한 공연예술의 창작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21] 김정일 시대에는 문학예술이 체제수호와 선전·선동의 역할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작품 창작을 요구하였다. 2019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코로나 팬데믹 발생 등으로 경제위기가 고조된 데다 자연재해로 인해 식량 위기까지 불거졌다. 김정은 체제의 위기는 문화예술과 공연예술에 직접 영향을 미쳐 집권 초기에 요구하였던 과감한 세계화를 대신하여 '천리마 시대'를 호명할

20) 하승희, "북한의 악단 변화연구(1945~2018)"(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1) 전영선, "김정은 시대 북한 공연예술의 현황과 특징".

정도로 부진했음을 강조하였다.

앞의 선행연구에서는 김일성·김정일 시대로부터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음악정치와 공연예술 활동의 변화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의 공연예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했으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부합되도록 연구 및 분석 대상을 김정은 시대 공연예술을 대표할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삼지연관현악단 그리고 제7차 및 제8차 당대회 축하 공연으로 제한하고, 이들을 시기별로 비교·분석할 것이다.

3. 김정은 시대 주요 악단의 공연실태 및 분석

1)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의 공연실태 및 분석

김정은은 최고지도자로 등극하면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카드로 문화예술을 활용하였다. 북한 당국 역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지도자를 확실하게 선전하기 위해 인민 친화적이고 대중적인 문화예술을 통해 인민에게 접근하는 파격과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22] 당시 북한은 김정은 집권 후 권력 기반이 취약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체제를 조기 정착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였기 때문에, 인민들에게는 권력 승계의 당위성과 미래비전을 제시해야만

22) 전영선, "김정은 시대 북한 문화예술의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제14권 10호(2012), 18~19쪽.

했다.[23] 당시 최고지도자에 오른 김정은은 경력이 일천한 데다 나이가 26세로 너무 어렸기 때문에 조기에 자신의 체제를 안착시키지 못하거나 당·군 간부들로부터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 경우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다.

최고지도자로서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던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데 이어 김일성 시대의 명작을 통한 문화적 감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단순한 외형의 변화를 넘어 더 강력한 것이 필요했던 김정은은 기존 틀에서 벗어난 연출을 통해 세계적 문화 추세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김정은은 집권 직후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을 주요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그는 '예술, 체육, 과학기술'을 체제의 세 가지 자랑거리로 내세우며, 이를 통해 인민의 생활과 정신세계를 "새 세기의 사회주의 문명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천명하였다. 이러한 구상은 단순한 문화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통치 전략이었다.

김정은이 강조한 사회주의 문명국가 표방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의미한다.[24] 이는 사회주의 문명국가 표방으로 인민들의 물질적 생활 수준을 중시하면서 정치, 사상적 우월성을 선전하는 동시에 경제적 발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주의국가처럼 정상화된 국가를 의미한다. 당시 김정은의 파격적인 선택은 새로운 악단을 창단하는 것이었으며, 정권 출범 직후 모란봉악단을 창단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냈다.[25] 모란봉악단은 7월 하이힐과 미니스커트 차림의 파격적

23) 이운우, "북한 문화예술정책 특성에 관한 연구"(2020), 71쪽.

24) 정해영, "북한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연구: 아리랑(2005)과 빛나는 조국(2018)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3권 2호(2020), 123~163쪽.

인 의상을 입은 여성 예술인만으로 창단됐다. 모란봉악단에 대해 김정은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는 혁신과 새것을 보여줄 '우리 당의 친솔악단', '국보적인 예술단체"라고 지칭하였다.[26]

모란봉악단은 2012년 7월 6일 첫 시범공연을 통해 등장을 알렸다. 『로동신문』은 공연을 관람한 김정은의 반향에 대해 "공연의 주제와 구성으로부터 편곡, 악기편성, 연주기법과 형상에 이르는 모든 음악 요소들을 기성 관례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혁신했다는 말씀을 하시였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청년들을 비롯한 인민들이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보면 무척 좋아하고, 출연자들과 호흡도 잘 맞출 것"이라고 보도한 것으로 보아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대중의 취향, 특히 청년의 취향에 잘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27] 이는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통해 김정은 시대 공연예술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란봉악단은 전자 바이올린, 일렉트릭 기타, 키보드 등 실용악기를 기반으로 한 경음악단이며, 대형 전자스크린과 레이저를 활용한 화려한 무대를 연출한 것이 그 특징이다. 김정은 체제에서 노동당의 핵심 분야인 컴퓨터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예술에 접목되는 현상이 있는데, 문화예술에서 첨단기술을 선보인 것이 모란봉악단이었다.[28]

모란봉악단은 레퍼토리를 통해 볼 때 기존의 가사와 선율보다는 다

---

25) 이운우, "북한 문화예술정책 특성에 관한 연구," 71쪽.

26) "당의 문예정책 관철에서 선봉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로동신문』, 2013년 1월 1일.

27)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조직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로동신문』, 2012년 7월 7일.

28) 전영선, "김정은 시대 북한 공연예술의 현황과 특징," 107~108쪽.

양한 리듬을 활용하였다. 2014년 5월 19일 진행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 공연'의 레퍼토리에 구성된 노래 대다수가 다양한 현대 리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편곡에서도 리듬과 분위기를 변화시켰다. 모란봉악단의 공연 특성은, 전반적으로 경쾌하고 리드미컬한 구성을 취하였으며, 여성 단원들의 장점을 활용, 젊고 세련된 이미지로 '현대적 사회주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공연 도입부에 〈스타워즈〉, 〈록키〉 등 서구 영화음악을 삽입함으로써 대중적 호소력과 함께 김정은의 '혁신적 지도자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김정은은 모란봉악단 창단에 2015년 7월 청봉악단을 창단하였다.[29] 청봉악단은 클래식 위주의 경음악단으로 '우리 식의 경음악단,' '우리 당의 또 다른 친솔악단'이라 불리었다. 청봉악단은 무용 중심의 왕재산예술단 소속으로, 왕재산예술단의 연주가와 모란봉 중창조의 핵심 가수들이 소속되어 있다.[30] 악단 명칭인 '청봉'은 백두산 남쪽에 있는 봉우리를 가리키며, 사철 소나무가 우거져 있어 푸른 봉이라고도 한다. 청봉은 1939년 5월 김일성이 부대를 끌고 무산지구 진출 시 숙영한 곳으로 알려진 혁명 전적지이기도 하다.

『로동신문』은 김정은이 직접 조직한 청봉악단의 창립 배경에 대해 "비상히 높아진 우리 인민의 지향과 문화 정서적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천만의 심장을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로 더욱 불타게 하고 예술

29) 왕재산예술단은 김정일 후계자 시기인 1983년 결성된 왕재산경음악단이 2011년경 무용 중심으로 재편된 단체이다.

30)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구상과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우리 시대 예술을 대표하고 선도해나갈 또 하나의 국보적인 예술단체 청봉악단이 조직되었다," 『로동신문』, 2015년 7월 28일.

부문의 침체와 부진을 불사르는 척후대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새로운 경음악단의 조직을 선포하시였다"라고 설명하였으며, 역할에 대해서는 "당의 전략적 의도를 수행하는 데서 나팔수"라고 밝혔다.[31] 창립배경에서 청봉악단의 역할에 대해 '당의 전략적 의도를 수행하는 데서 나팔수'라고 밝힌 것은 당시 예술과 인민의 취향과는 괴리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모란봉악단과 청봉악단의 공통점은 경음악이며,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이점은 모란봉악단은 전자 바이올린과 일렉트릭 기타, 전자 비올라, 전자 첼로, 신시사이저 등 전자악기로 구성됐다. 반면 청봉악단은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에 색소폰, 트럼펫 같은 금관악기 위주로 구성됐다. 또한 모란봉악단처럼 전자악기를 쓰지 않고 클래식 악기를 사용하며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32] 청봉악단은 2015년 창단 직후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당에서 공훈국가합창단과 합동 공연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는 강릉과 서울에서 모란봉악단, 삼지연관현악단 등과 합동 공연을 하는 등 대외 문화교류 활동에 주력하였다.

2)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실태 및 분석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당시 남북 간 문화교류를 위해 새로운 악단을 창단하고 여러 개의 악단을 합동 공연체제로 활용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기를 타개하

31) 『로동신문』, 2015년 7월 28일.
32) 하승희, "북한의 악단 변화연구(1945~2018)," 260쪽.

고 국면전환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의 공연예술은 내부 통합보다 대외이미지 전략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삼지연관현악단이 창단되었다.[33] 이는 김정은이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악단을 즉흥적으로 창단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당시 삼지연관현악단은 김정은이 국제적인 무대에 처음 나설 즈음 창단되어 그 의미가 크다.

김정은은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평창동계올림픽을 언급하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대표단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34] 이에 따라 남북 간 실무접촉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북측예술단의 강릉·서울 공연이 합의되었고, 이후 특별공연이 성사되었다.[35] 삼지연관현악단의 2018년 강릉공연(2월 8일)과 서울공연(2월 11일)을 통한 남북 문화교류는 폐쇄적이라고 알려진 북한 사회에서 보편적인 음악들의 수용 가능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김정은의 개방적인 이미지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

33) 김정은 집권 시기에 전자현악 중심의 모란봉악단과 클래식 악기 중심의 청봉악단이 등장하였다. 모란봉악단은 김정일 시대 창단된 공훈국가합창단과의 합동 공연을 통해 군(軍) 악단의 경음악화를 주도하며 청년세대를 이끌고자 하였고, 청봉악단은 앙상블을 활용한 초기 이미지와 경음악적 요소를 부각시켜 대외교류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삼지연관현악단은 긴장된 남북관계를 완화하고 국제사회의 우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즉흥적으로 창단되었다. 이처럼 김정은은 필요에 따라 악단을 창단하거나 개편하였다.

34) "신년사," 『로동신문』, 2018년 1월 1일.

35)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북측 예술단 강릉, 서울공연 합의," 통일부(보도자료), 2018년 1월 15일. 이 행사를 위해 몇 차례 남북협의가 진행되었고, 북한 측에서는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 국장 단장, 현송월 관현악단 단장, 김순호 관현악단 행정부단장, 안정호 예술단 무대감독이 참여하였다.

당시 북한 예술단의 방남 공연은 남북 간 정치적 문제를 피하고자 노래 가사보다는 기악곡 연주에 치중하였으며, 공연을 통해 핵무력 완성에 따른 선전·선동 효과를 극대화하고, 체제유지와 인민들의 결속을 다지고자 하였다. 방남 공연은 남북 간 첫 음악 교류이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남북 간 국제적 행사로 김정은 정권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할 기회였다. 또한 이 공연은 북한의 핵 개발 완성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대북제재 속에서 국제 문화외교 전략수단으로 적절하게 활용된 사례이다.

북한은 삼지연관현악단의 방남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레퍼토리에 정치색을 배제하고,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등 여러 공연단체를 조합하여 각 단체가 주력하는 세계적 기준에 맞는 레퍼토리들을 총동원하여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하였다. 당시 김정은은 삼지연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유치하고자 했으며, 삼지연 일대를 세계적 기준에 맞추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여 삼지연관현악단과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개관 등 '삼지연'이라는 명칭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노력하였다.[36]

삼지연관현악단의 방남 공연은 당시여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진행된 첫 번째 공연과 두 번째 방남 공연의 주요 레퍼토리는 크게 북한노래, 남한가요, 통일노래로 구성하였다. 주요 노래 곡명은 '반갑습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 'J에게'(이선희), '당신은 모르실거야'(혜은이), '사랑의 미로'(최진희), '다함께 차차차'(설

36) "사회주의 문명이 응축된 인민의 문화예술전당: 당의 은정 속에 우리나라 극장의 본보기로 새롭게 개건된 삼지연관현악단 극장개관식 진행," 『로동신문』, 2018년 10월 11일.

운도), ‘백두와 한라는 내조국’, ‘통일은 우리민족끼리’,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 22곡이다. 외국 곡(관현악)으로는 ‘모차르트 교향곡 40번’, ‘뛰르끼예 행진곡’, ‘집시의 노래’, ‘백조의 호수’,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의 왈쯔’ 등 24곡이다.

삼지연관현악단은 강릉과 서울 방남 공연 이후 2018년 2월 16일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세 번째로 ‘귀환 공연’을 진행했으며, 이어 ‘중국 예술단 방문 환영연회공연’, ‘평양 정상회담 환영 만찬 공연’, ‘중국예술인 대표단 환영 공연’, ‘쿠바 내각 수상 환영 합동 공연’ 등 2018년에만 무려 9차례 공연을 진행하였다. 삼지연관현악단의 특징은 대형 클래식 오케스트라 기반에 민족악기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상은 개량 한복과 서양식 턱시도를 착용하는 등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었다.

삼지연관현악단의 공연예술의 특성은 과거의 직접적 선동이 아닌, 간접적 감성 호소에 중심을 두었다. 그리고 전통음악, 팝, 클래식, 민속무용을 혼합한 음악 양식을 보여주었으며, 객석과의 상호작용, 남북합동 무대 등 다양한 연출을 선보였다. 특히 삼지연관현악단은 공연예술을 문화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한 대표적 사례이자 공연예술을 통해 ‘국가 브랜드화’에 기여한 사례이기도 하다. 다음의 〈표 1〉은 삼지연관현악단의 2018년 주요 공연목록을 정리한 것으로 평창동계올림픽 1·2차 공연, 중국 예술인대표단 환영 공연 등은 문화 외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 공연 사례라 할 수 있다.[37]

37) 만수대극장은 만수대예술극장, 정주영체육관은 유경정주영체육관, 삼지연극장은 삼지연관현악단극장을 말한다.

〈표 1〉 삼지연관현악단의 2018년 주요 공연목록

순서	날짜	공연명	장소
1	2018.2.9.	평창올림픽 계기 방남공연 1회차	강릉아트센터
2	2018.2.11.	평창올림픽 계기 방남공연 2회차	서울국립극장
3	2018.2.16.	귀환공연	만수대극장
4	2018.4.3.	방북공연 2회차 (부분 합동 공연)	정주영체육관
5	2018.4.14.	중국예술단방문 환영연회공연	-
6	2018.9.18.	평양정상회담 환영만찬공연	-
7	2018.10.10.	삼지연관현악단 극장개관식	삼지연극장
8	2018.11.2.	중국예술인대표단 환영공연	삼지연극장
9	2018.11.4.	쿠바 내각수상 환영 합동공연	-

4. 당 대회 축하공연을 통한 공연예술의 변화과정 분석

1) 제7차 당대회 축하공연 내용 및 분석

김정은이 집권 5년 차인 2016년 제7차 당대회 때 문화예술 정책으로 내세운 핵심은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이었다. 당대회를 통해 노동당 제1비서에서 노동당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정은은 선대의 지도자 김일성·김정일과 같은 반열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당과 인민으로부터 충성과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제7차 당대회 대규모 축하공연은 김정은이 국가와 인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선대에 비해 능력이 결코 능력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며, '사회주의 문명강국 건설'의 성과를 내기 위한 김정은의 본격적인 시도이기도 하다.[38]

38) 북한은 김정은 체제 5년 차인 2016년에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자 제6차

김정은 체제 공연예술의 변화과정은 제7차 당대회 축하 공연에서 잘 나타나 있다. 제7차 당대회 축하 공연은 김정은 집권 초기의 공연 때보다 개최 일수, 참여자 수, 무대 장식 등 외형적인 부문에서 그 규모가 모두 확대되었다. 프로그램 구성 면에서도 관현악 연주에 무용이 포함되는 등 다양화되었다.[39] 이는 김정은 집권 5년 동안 북한의 문화예술 부문이 기술·내용 면에 있어서 매우 풍부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축하 공연은 '영원히 우리 당 따라'라는 부제로 시작되어 애국가를 포함, 모두 22개 코너로 구성되었으며 공연 내용은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등 3개 악단의 연주와 노래를 통한 합동 공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공연 프로그램(곡명)을 살펴보면, '남산의 푸른 소나무',[40]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노래',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노동당은 우리의 령도자',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김정

당대회 개최(1980) 이후 36년 만인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김정은의 노동당 위원장 추대와 함께 정상적인 당-국가체제로 전환하였다. 북한은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정상적인 당-국가체제를 갖추면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각인시키고자 했다. 이에 당대회 직후 제7차 당대회 경축 공연을 개최한 것은 정상적인 당-국가체제로의 전환과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 핵·경제 병진노선 재확인 및 인민 생활 개선 등 제7차 당대회의 핵심과제를 대외적으로 선포함과 동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39) 권란, "조선노동당 당대회 축하공연 분석을 통한 김정은 문화예술정책 변화상," 44~47쪽.

40)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북한에서 불후의 명작으로 손꼽는 곡인데, 이 곡은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 1918년 "조국광복의 원대한 뜻을 실현하기 위해 만경대를 출발하면서 지은 것"으로 선전되고 있다. 노래 가사에서도 볼 수 있는 이 곡은 김일성 가문의 항일투쟁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제7차 당대회 직후 열린 축하 공연 첫 곡을 '만경대 가문의 곡'으로 선택한 것은,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일 동지께 드리는 노래', '불타는 소원', '그이 없인 못살아',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사회주의 지키세', '빨치산 노래 련곡(메들리)',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라' 등이다. 이 공연 프로그램 곡명을 분석해 보면, '3대 세습 정당화', '당과 지도자에 충성', '핵·경제 병진노선 재확인' 등 세 가지 특징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41]

특히 김일성·김정일 찬양곡에 이어 김정은 찬양곡이 4곡 등장하였는데, '불타는 소원',[42] '그인 없이 못살아',[43] '우린 당신밖에 모른다'[44] 등은 김정은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노래 가사에서도 김정은을 직접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불타는 소원(2절: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을 이어주시며 인민위한 한길만을 언제나 걸으십니다)'라는 노래 가사는 제7차 당대회 기간 동안 강조했던 것처럼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김정은이 이어가는 내용으로 3대 세습의 정당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45]

제7차 축하 공연에서 당 찬양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대

41) 권란, "조선노동당 당대회 축하공연 분석을 통한 김정은 문화예술정책 변화상," 46~47쪽.

42) '불타는 소원'은 김정은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모란봉악단이 처음으로 발표했던 곡으로 김정은의 3대 세습을 정당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43) 2013년 12월 21일『로동신문』1면에 실린 곡으로 김정은의 권위를 부각시키고 유일영도체제를 강조하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하승희, "북한의 악단 변화연구(1945~2018)," 249쪽.

44) 2013년 12월 9일『로동신문』2면에 실린 곡으로, 인공기와 노동 당기, 꽃을 들고 환호하는 인민의 모습과 함께 악보를 게재하였다. 평소『로동신문』은 흑백으로 인쇄하지만 이날 신문은 컬러로 제작되며 환호하는 인민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등장하였다.

45) 권란, "조선노동당 당대회 축하공연 분석을 통한 김정은 문화예술정책 변화상," 44~49쪽.

표적인 당 찬양곡으로는 '어머니 목소리', '어머니 당이여',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 당이여' 등이며 당 찬양 메들리까지 등장하였다. 이는 당 대회를 통해 당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공연 음악을 통해 당에 대한 충성과 결집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에서는 지도자는 아버지, 노동당은 어머니의 이미지로 그려지는데, 당 찬양곡 중 당을 어머니에 비유한 곡이 많은 것은 당의 역할을 그만큼 중요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축하 공연의 마지막 곡은 '영원히 한 길 가리라'이었는데, 이 곡은 앞선 곡들과 마찬가지로 당 중심 체제를 강조하고 당을 위한 충성을 맹세하는 곡이다. 이 곡이 중반부쯤 연주될 때 무대 뒤 스크린에는 2016년 2월 발사 성공한 광명성 4호와 관련된 화면이 연속으로 등장하였으며, 이어 김정은의 당시 친필 명령 사진과 함께 "수소탄 완전실험 성공"이라는 문구가 잇따라 등장했다.[46] 이는 '핵·경제 병진노선'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김정은의 성과를 과시함과 동시에 김정은의 우상화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연에 참여한 공훈국가합창단, 청봉악단, 모란봉악단 3개 단체가 모두 한 무대에 등장하여 완벽한 컬래버레이션을 선보였다.[47]

북한은 제7차 당대회 개최 다음 해인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핵 무력 완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한층 강화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북한은 대북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비롯해 대외적 관계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 시기에 평창동계올림픽 문제가 거론되었

---

46) 위의 글, 53~57쪽.

47) 둘 이상의 힘을 합쳐 일하는 것을 뜻하는 낱말로, 특히 가수 등이 합작해서 서로의 이미지를 합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고, 김정은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라는 문화외교 교류를 통해 대북제재 분위기 완화 조성 등 국면 전환의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2) 제8차 당대회 축하공연을 통한 공연예술 변화과정 분석

2016년 제7차 당대회 축하 공연 개최 이후 정상국가로서 발전을 기약한 김정은의 경제정책은 2017년 핵무력의 완성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실패하였다. 당시 경제가 어려워지자 경제 회생과 평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했던 김정은 정권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 참여한 데 이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등 대외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 시기 체제수호를 위한 '우리국가제일주의'가 강조되었으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2018년 〈빛나는 조국〉, 2019년 〈인민의 나라〉, 〈우리의 국기〉, 〈불패의 사회주의〉가 창작됐다.

북한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8년 정권 수립(9.9) 70주년을 맞아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공연하여 건국의 자부심을 선전하면서 '우리국가제일주의'를 강조하였다.[48] 〈빛나는 조국〉은 2013년 공연이 중단된 집단체조 〈아리랑〉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작품의 전체 흐름은 〈아리랑〉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적인 내용과 형식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 구성 내용은, 제1장 건국과 김일성의 업

48)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정권 수립(9.9) 70주년을 '대경사'로 경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북한은 열병식과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그리고 횃불 야회 등 화려한 공연들을 통해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행사를 1개월 동안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적 찬양, 제2장 김정일의 선군정치 자랑, 제3장 김정은의 과학과 산업의 성과를 통한 강국 이미지 형성, '사회주의 문명강국' 강조, 제4장 '통일'을 주제로 4.27 선언 홍보, 제5장 정상국가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종장은 공중 드론을 통해 '조선아 만세!'라는 문구와 함께 '김정은에 대한 헌사'가 노래로 흘러나오면서 '존엄 높은 인민', '당을 따라 하늘 끝까지' 등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문구가 뒤를 이었다.[49] 이처럼 〈빛나는 조국〉은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송가를 넘어 국가에 대한 충성과 정상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빛나는 조국〉은 〈아리랑〉과 비교할 때 현대화·서구화 형식을 갖추고 있어 김정은 시대의 공연예술과 문예정책이 새롭게 변용되어 가고 있음을 잘 보여준 것이며, 동시에 공연예술을 통해 과거에 존재했던 당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하는 방법을 새롭게 보여주고 차별화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

북한의 제1차 북·미정상회담 참여,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등 남북관계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는 달리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외부 조건을 개선하고, 정상국가로서 발전을 기약한 김정은의 경제정책은 실패하였다. 북한은 경제실패에 이어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과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위기라는 삼중고를 겪으면서 그 위기가 고조되었

49)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 대공연 행사를 통해 '인민'과 '당'을 언급하는 것은 당을 앞세우며 정상적인 당-국가체제로의 면모를 강조하는 김정은의 메시지가 담겨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 경축 공연에서 연출된 김정은 시대의 인민은 선대처럼 '수령의 자식'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공화국의 인민'으로 인식되며, 사회주의 문명국을 건설하는 동시에 그들의 필요와 욕구가 충족되는 정상국가의 인민이라는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다. 당시 북한 당국은 코로나 상황에 맞서 중국에 대해 전면적인 국경 봉쇄로 대응하다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대외무역까지 끊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정은과 당의 노력에 의한 '과학기술'의 성과로 예술 분야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공연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화려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50]

이러한 체제의 위기는 문화예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공연예술의 기능은 '내부 결속과 체제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렀고, '혁명정신'과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며, 또다시 이념 중심의 예술을 복원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 시기에 북한에서는 민족성의 상징인 '우리국가제일주의'가 등장하였다.[51] 제7차 당대회 축하 공연 개최 이후 침체기에 있던 북한의 공연예술의 변화과정은 2021년 1월 개최한 제8차 당대회 축하 공연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제8차 당대회는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7차 축하 공연에 비해 김정은의 권력공고화와 체제의 안정화를 선전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났다.

제7차와 제8차 당대회의 공통점은 '피날레적인 성격을 띤 문화예술공연'이라는 점, 그리고 당과 최고지도자에 대한 우상화이다. 하지만 규모, 프로그램, 메시지 등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제8차 당대회 축하 공연은 개최기간, 규모, 참석인원 등의 모든 면에서 제7차 공연 때보다 대폭 확대되었다. 제7차 축하 공연은 단 1일, 1회 공연으로 그

50) 전영선, "김정은 시대 북한 공연예술의 현황과 특징," 93쪽.

51) 정영철(2020)은 우리 국가제일주의가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 달성을 위한 인민 동원을 정당화하는 담론이라고 해석하였다. 정영철, "북한의 우리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제23권 1호(2020), 23~26쪽. 북한 당국이 우리 국가제일주의 담론을 내세운 배경에는 김정은 개인숭배 및 경제발전을 위한 동원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친 데 반해, 제8차 축하 공연은 12일에 거쳐 매일 1회씩 공연이 개최되었다. 제8차 축하공연 때에는 김정은이 직접 참석하여 공연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52] 김정은의 공연 참석은 경제제재, 코로나 팬데믹, 자연재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와중에 당의 굳건함을 알리고 주민들이 결속 도모를 위해 의도적인 참석으로 분석된다. 제7차 공연은 주로 노래로 이루어졌는데, 제8차 공연은 노래와 연주, 음악, 무용, 집단체조까지 포함된 '종합프로그램'이다.[53]

제8차 공연의 핵심내용은 '당의 위상 강화', '김정은의 우상화와 권한 강화', '핵 고도화정책 추진 강화'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제8차 공연에서는 제7차 공연 때 강조한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위한 노력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형식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보여주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무대 설치와 규모에 있어서 자본주의에서의 '블록버스터 공연'을 방불케 할 정도로 대규모로 현대적이었을 뿐 아니라 표현 방식도 제국주의식 문화를 수용할 정도이었다.

제8차 당대회 축하 공연은 '당을 노래하노라'라는 부제로 시작하여 서곡을 포함해 모두 18개 코너로 구성되었으며, 공연 내용은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삼지연관현악단, 공훈국가합창단 등 4개 악단의 연주와 노래로 합동 공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공연 프로그램(곡명)을 살펴보면, '김일성 원수께 드리는 노래', '천리마 달린다', '구름너머

52) 권란, "조선노동당 당대회 축하공연 분석을 통한 김정은 문화예술정책 변화상," 67쪽.

53) 제8차 공연에서 당대 최고 예술단체인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등이 다양한 장르로 대규모의 합동공연을 하는 것은 북한에서도 이례적인 행사로, 그만큼 행사의 의미와 중요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운 장군별님(김정일)께', '사회주의 지키세', '소년단 행진곡', '당에 드리는 송가', '당이여 나의 어머니시여',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김정은 장군께 영광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행사 프로그램은 당의 위상을 강화하고 최고지도자를 우상화하는 내용이었다.

지금까지 5년 간격으로 두 차례 열린 제7차, 제8차 당대회 축하 공연 분석을 통해 북한 공연예술의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김정은은 선대에서도 활용했던 '체제수호와 선전·선동'이라는 문화예술의 근본적인 목적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형식상·내용상으로는 많은 변화를 꾀하였다. 이른바 '통제적 변화와 시도' 속에서 집권 시기 동안 문화예술정책을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면서 사회주의 문명강국의 목적달성을 위해 북한식 세계화·현대화를 추진하였다. 앞으로 김정은 시대의 문화예술 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주도적 역할'하에 '변화와 시도'를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변화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김정은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5. 제8차 당대회 이후 공연예술의 변화과정 및 함의

북한은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2021년 제8차 당대회까지 경제위기가 지속됨으로써 공연 활동과 창작 활동이 부진하였다. 이에 공연 활동을 통해 북한 사회 전반에 대해 화려한 미래를 보여주는 주제에서, 사회주의 진지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그 주제를 바꿨다. 이는 공연예술의 역할이 다시 '사상전의 전선'으로 전환되고 있

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김정은 집권 초기에 요구하였던 과감한 현대화·세계화를 대신하여 '전쟁세대의 영웅' 등이 소환되었는데, 관련 작품으로는 체제수호 가극인 〈영원한 승리자들〉(2021)이 있다.[54] 이 시기에 김정은은 경제난으로 고생하는 인민을 위로하고 결속하고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찬란하고 현란한 무대를 통해 현대적·서구적 무용을 접목시킨 공연예술을 선보였다.

제8차 당대회 이후 공연예술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충성심 고양 또는 사상 전환적 작품이 등장하였다. 체제수호 가극 〈영원한 승리자들〉은 2021년 10월 27일 '피바다가극단'에 의해 창작된 가극이다. 주제는 '6·25전쟁' 당시에 있었던 월미도 해안포병의 '영웅적 이야기'이다.[55] 가극 〈영원한 승리자들〉의 창작 배경은 정치적 상황과 맞물린다.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처한 상황과 위기의식을 반영하여, 청년을 비롯한 전승 세대의 교훈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창작되었다.

둘째, 공연예술의 또 다른 특징은 과학화, 세계화, 현대화이다. 북한은 2020년 '당 창건 75주년'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로 〈빛의 조화〉라는 조명축전을 새롭게 선보였다. 이 행사는 김정은 시대에 처음 시도된 공연양식으로써 10만 명 이상이 출연하는 초대형 공연행사이며, 평양 제1백화점 건물 외벽 스크린에 음영효과와 색조를 입혀 역동적으로 표현한 '미디어 파사드 형식'으로 진행되었다.[56] 이처럼 조명축

54) 전영선, "김정은 시대 북한 공연예술의 현황과 특징," 103쪽.

55) "가극 영원한 승리자들," 『조선예술』, 제2호(2022), 44쪽.

56) 『로동신문』은 "조선로동당 창건 75돐을 경축하여 조명축전 '빛의 조화-2020'이 시작되였다" 제하로 "'빛의 조화 '2020'은 황홀한 빛의 예술이며, '3차원 다매체와 다통로 다중투영기술'로 평양 제1백화점의 건물벽면에 대형화상

전 〈빛의 조화〉는 김정은 체제의 국가발전 전략과 문화예술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공연양식으로 김정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성과들을 과시함과 동시에 향후 북한의 발전 노선을 조망해 볼 수 있는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셋째, '이벤트성 대형공연'과 '노래와 춤을 결합한 화려한 가무'이다. 김정은 체제에서 노래와 무용공연은 어느 때보다 경쾌하고 화려하며 빨라졌다. 음악은 음악대로, 춤은 춤대로 움직이던 것에서 춤과 노래를 같이하는 가무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율동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화려해졌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공연예술에서의 '주체'를 강조하던 것과 달리 북한 가요와 서양식 대중예술을 접목한 무용이 많아졌다. 김정일 시기까지 중심이 되었던 혁명 무용과는 전혀 색채가 다른 '그림자 무용', '타프춤' 등의 현대 무용이 주요 공연 레퍼토리로 등장했다. 김정은 체제의 공연예술은 과거 인민 대중이 행사에 동원되던 방식에서 인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변화하였다. 실례로 '설맞이' 공연, 노동당 창건일 등 기념행사를 심야에 드론, 불꽃, 레이저 조명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57]

김정은이 집권 초기 주장한 사회주의 문명국가의 내용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의미한다. 이는 인민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중시하고, 정치 사상적 우월성보다 경제적 발전을 통해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시각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을 북한 당국과 주민들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문명국가의 근본 기저에는 장마당 등에서 시장경제를 경험한 북한 인민들의 '잘살고

들을 이채롭게 펼친 조명축전이다"라고 평가하였다. 『로동신문』 2020년 10월 7일.

57) 전영선, "김정은 시대 북한 공연예술의 현황과 특징," 93~111쪽.

싶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정권은 각종 경축 행사를 통해 인민 대중을 강조한 것이며, 공연 예술의 변화과정을 통해 사회문화적 변화과정을 조명한 이 연구 또한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함의를 가진다.

6. 결론

김정은은 집권 후 권력 기반이 취약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정당성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김일성의 이미지와 중첩시키고자 했다. 또한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사회주의 문명국가를 표방하고, 외부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북한식 세계화와 현대화를 추구하고자 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문명국가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시대와 요구에 맞는 현대적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의 공연예술은 형식과 내용 양면에서 다변화되고 세련된 변화 양상을 보였다. 전통적인 선전·선동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과 시청각적 세련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였다. 이처럼 진화된 변화 양상은 2012년 창단된 모란봉악단의 공연방식을 통해 확인되었다. 모란봉악단은 서구식 편곡, 세련된 무대연출, 여성 중심의 아이돌과 같은 이미지 등을 통해 기존의 경직된 예술형식과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공연예술이 단순한 체제 선전 수단을 넘어, 김정은 정권의 세대교체, 젊고 혁신적인 이미지 정치, 문화적 현대성을 상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정은 시대의 공연예술은 형식적으로는 전통적인 집단 무용과 대

형 합창형식을 유지하면서 서구적 무대연출과 첨단기술의 도입을 통해 개방성, 현대성, 대중성, 시청각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지도자 중심의 선전체제에 종속되어 통제된 개방의 성격을 지닌다. 반면, 내용적으로는 김정은 개인에 대한 우상화와 체제의 정당성 강화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과학기술 중심, 경제 부흥, 인민 생활 향상 등 '실용적 이상'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공연예술의 변화는 선전·선동 의도가 없지 않으나 시대적 적응과 체제 생존 차원의 전략으로서 이해가 가능하다.

김정은 시대 공연예술의 다양한 기능을 정리해 보면, 먼저 정치·정책적으로는 공연예술의 현대화·세계화를 통해 '강성국가'와 '문명국가'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에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사회적 기능으로는 악단 공연과 당대회 축하 공연 등을 통해 김정은의 '충성심 고양'과 '인민과의 일체감'으로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예술의 현대화·개방화를 통해 인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국제사회에 북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다. 청봉악단이 공훈합창단과 함께 러시아 친선공연 행사를 진행하고, 삼지연관현악단이 창립되어 2018년 평창올림픽을 참가 등 세계무대에 등장시키는 등 공연예술을 문화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김정은 시대 공연예술은 그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면에는 예술의 자율성보다는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등 정치적 목적의 성격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다. 공연예술이 현대화·세련화된 이면에는 당국의 철저한 통제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적 진화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전략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북한의 공연예술은 지금처럼 철저히 통제된 문화 생산체계 안에서 '관리된 변화'로 기

능하면서 북한 문화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유지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우리 당국은 북한이 추구하는 문화예술의 개방화·현대화·세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우호적 여론을 확보하고, 비군사 분야인 문화예술과 공연 활동을 통해 남북문화교류의 발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 투고: 2025.11.04. / 수정: 2025.12.08. / 채택: 2025.12.10.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안희열, 『주체적 문예리론 연구 22: 문학예술의 종류와 형태』(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6).

2) 논문

“가극 영원한 승리자들,” 『조선예술』, 제2호(2022).

3) 신문

“감사문: 당의 문예정책 관철에서 선봉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모란봉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로동신문』, 2013년 1월 1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조직된 모란봉악단의 시범공연을 관람하시였다,” 『로동신문』, 2012년 7월 7일; 7월 9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구상과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우리 시대 예술을 대표하고 선도해나갈 또 하나의 국보적인 예술단체 청봉악단 이직되였다,” 『로동신문』, 2015년 7월 28일.

“사회주의 문명이 응축된 인민의 문화예술전당: 당의 은정 속에 우리나라 극장의 본보기로 새롭게 개건된 삼지연관현악단 극장개관식 진행,” 『로동신문』, 2018년 10월 11일.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 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로동신문』, 2014년 5월 17일.

“신년사,” 『로동신문』, 2018년 1월 1일.

“조선로동당 창건 75돐을 경축하여 조명축전 ‘빛의 조화-2020’이 시작되였다,” 『로동신문』, 2020년 10월 7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강동완,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하다』(서울: 선인, 2014).

이우영, “북한 문화예술의 개념 및 역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문화, 둘이면서 하나인 문화』(파주: 한울엠플러스, 2006).

2) 논문

강동완, “북한의 제7차 당대회 경축 모란봉악단,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특징과 의미,” 『정치·정보 연구』, 제23권 2호(2020), 1~28쪽.

권란, “조선노동당 당대회 축하공연 분석을 통한 김정은 문화예술정책 변화상”(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오양열, “90년대 말 북한 문예정책의 동향과 향후 전망,” 『문화정책 논총』, 제11권(1999), 161~191쪽.

이운우, “북한 문화예술정책 특성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이춘길, “북한 문화이론의 주요개념에 대한 고찰,” 『대중서사연구』, 제2호(2009), 315~344쪽.

전영선, “김정은 시대 북한 공연예술의 현황과 특징,” 『통일과 평화』, 제15집 2호(2023), 89~119쪽.

전영선, “김정은 시대 북한 문화예술의 변화,” 『KDI 북한경제리뷰』, 10월호(2012).

정영철, “북한의 우리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제23권 1호(2020), 8~38쪽.

정해영, “북한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 연구: 아리랑(2005)과 빛나는 조국(2018)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23권 2호(2020), 123~163쪽.

주정화, “북한의 음악정치: 5대 혁명가극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1집 1호(2015), 133~150쪽.

최영애, “북한음악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남북문화예술연구』, 통권 6호(2010), 169~193쪽.

하승희, “북한의 악단 변화연구(1945~2018)”(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3) 기타 자료

고수석, “김정일·김정은 부자 ‘노래’로 권력과 부인을 얻다: 북한의 3대 결친 ‘음악정치’,” 『월간중앙』, 제44권 3호(2018), 82~87쪽.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of Cultural and Artistic Expression in the Kim Jong-un Era

Seo, Min Jeong(Kyungsang National University) ·
Back, Seung Jin(Kyu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n performing arts during the Kim Jong-un era, analyzing their functional significance within the country's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 Under Kim Il-sung and Kim Jong-Il, performing arts served as a "vanguard of ideological struggle," primarily used to preserve the regime and idolize its leaders. Since coming to power, Kim Jong-un has emphasized the construction of a "socialist civilized nation" and positioned culture and the arts as a "central pillar of national governance." Through this, he has sought to project the modernity of the system and his own image as an innovative leader. These cultural policies are reflected in the content, form, and technology of performing arts, particularly through prominent art troupes such as the Moranbong Band, Chongbong Band, and Samjiyon Orchestra. The study divides the

development of performing arts under Kim Jong-un into three stages—early, middle, and late periods of his rule—and analyzes their characteristics in each phase. It concludes that performing arts in the Kim Jong-un era have evolved beyond mere propaganda and regime maintenance to function as a tool of emotional politics for internal cohesion and as a cultural diplomacy strategy for shaping the country's external image.

Keywords: Kim Jong-un era, North Korean performing arts, Moranbong Band, Chongbong Band, Samjiyon Orchestra, national image formation